

100년 역사의 아스피린

- 바이엘코리아(주) 자료제공 -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복용하는 세기적인 약품 '아스피린'은 수천년 동안 사용되어 온 자연 치료법을 화학적으로 개량한 제품이다. 단순한 두통을 넘어서 감기, 독감,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까지 그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데 효능을 발휘하는 아스피린. 본지에서는 발매 105주년을 맞이한 아스피린의 포장변천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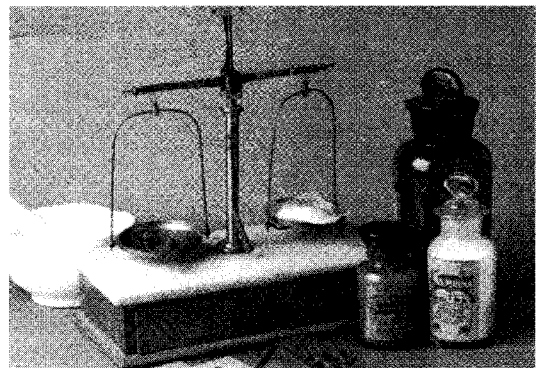
1. 기적의 약, 아스피린 탄생

아스피린의 역사는 기원전 1550년부터 시작된다. 당시에 남겨진 파피루스에는 버드나무 껍질이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현대 화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화학자들은 버드나무 껍질의 효능이 '살리실산'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임을 밝혀냈고, 골치 아픈 산업 쓰레기였던 콜타르에서 장티푸스와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는 살리실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살리실산은 구역질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약이었다. 이 약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를 위해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살리실산과 반응시켜 먹기도 쉬운 '아스

피린'을 개발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의 수백만 명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20세기. 전 대륙으로 확산된 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유행했던 1895년처럼 많은 희생자를 낼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바로 그 때 바이엘



▲ 1899년 1g단위로 종이봉투에 담겨진 아스피린



▲ 독일에서 출시된 아스피린(좌 : 1899년, 우 : 1912년), 1909년 미국에서 출시된 아스피린 포장

의 새로운 약품인 '아스피린'은 1900년 유행병 기간에 성공적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후 몇 년동안 거의 규칙적으로 발생하던 인플루엔자 유행에 보다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열과 두통뿐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도 효력을 발휘한 아스피린에 대해 언론에

서는 '기적의 약'이라고 칭하기 시작, 아스피린의 명성은 거듭나게 됐다.

2. 아스피린의 세계적 포장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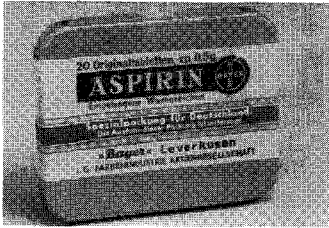
독일 및 다른 80여개국의 등록상표인 아스피린은 발매 초기 아스피린은 지금의 타블렛 형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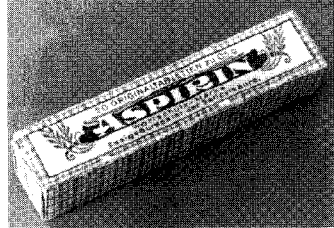
▲ 1930년 일본에 출시된 파우더 형태의 아스피린



▲ 7가지 다양한 포장의 아스피린(1930년, 일본)



▲ 1925년~1945년 독일의 아스피린



▲ 1930년 아스피린 종이팩(독일)



▲ 1950년 플라스틱포장형태 (독일)



▲ 100년간 미국에서 출시된 다양한 아스피린 포장형태



▲ 현재 국내판매중인 아스피린

아닌 파우더 형태였다. 1899년 경 아스피린은 250g의 병 단위로 약국에 공급되기 시작, 가루는 1g단위의 종이 봉투에 담아 환자들에게 판매됐다. 그러나 얼마 후 많은 고객들이 원래의 약제가 다른 물질로 오염됐다고 항의하기 시작함에 따라 바이엘에서는 정제형태로 압축할 수 있는 ASA를 발표했다.

출시한지 1년이 지나 1900년부터 아스피린은 500mg의 아세틸살리실산 정제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최초의 약제가 됐다.

1920년대 미국에서 출시된 아스피린은 24개 타블렛의 형태로 포장됐으며 1930년 독일에서는 20 타블렛 형태로 출시됐다.

1930년 일본에서는 파우더 형태의 아스피린

이 각기 다른 7개 포장 단위 형태로 출시됐으며 1950년 독일에서는 아스피린포장에 tin(양철) 재질과 플라스틱을 넘어서 cardboard(판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3. 맺으며

아스피린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파우더의 형태에서 타블렛 제형으로 바뀌면서 병, 플라스틱, 양철, 카톤, 판지보드를 포장에 이용, 발전해왔다. 새로운 효능의 지속적인 발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아스피린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무한한 이용가치를 드러내며 소비될 것이라 생각한다. ¹⁰⁾